

AUDIOGUY

AUDIOGUY KOREAN TRADITIONAL MUSIC SAMPLER

오디오가이 국악 모음집

1. Cheonnyeonmanse 2. Ajaeng Sanjo 3. Hahyondodeuri 4. Daegum Sanjo

1. 천년만세 2. 아쟁산조 3. 하현도드리 4. 대금산조 5. 피리 상령산 풀이 6. 시나위

5. Piri Sangryongsan Pul-i 6. Sinawi

천년만세(千年萬歲) = ‘천년만세’는 ‘계면가락도드리[界面加樂還入]’, ‘양청도드리[兩淸還入]’, ‘우조가락도드리[羽調加樂還入]’ 세 개의 곡으로 이루어진 모음곡으로, 악기 구성은 거문고(玄琴), 가야금(伽倻琴), 해금(奚琴), 세피리[細路篳], 대금(大笏), 단소(短簫), 양금(洋琴), 장구(杖鼓) 등이다. 경우에 따라 편성을 줄여 중주 형태로 연주할 수도 있지만, 양금만금은 ‘천년만세’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악기이다. 독특한 매력의 음색으로 가락과 가락 사이를 화려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모음곡 중 두 번째 작품인 ‘양청도드리’는 빠른 장단과 흥겨운 선율을 가지고 있어 전통음악 감상의 입문에 가장 알맞은 음악으로 손꼽힌다.

Cheonnyeonmanse = Cheonnyeonmanse consists of Gyemyeon Garak dodeuri, Yangcheon dodeuri, and Ujo Garak dodeuri. This is usually played by a musical ensemble comprised of eight instruments: geomungo, gayageum, haegeum, sepiri, daegeum, danso, yangeum, and janggu. Cheonnyeonmanse, occasionally, can be played in the forms of a duet or trio. The yangeum is the most essential instrument in Cheonnyeonmanse. Its unique, splendid tone color fills the space between musical notes. Yangcheon dodeuri has quick and jovial rhythms, famous as a popular introductory piece to traditional Korean music.

아쟁산조(牙箏散調) = 우리의 무속음악(巫俗音樂)과 그곳에서 파생한 판소리 그리고 산조(散調)로 이어지는 변천의 과정 속에서, 기악음악으로서 고도로 발달된 장르가 바로 산조이다. 아쟁(牙箏)과 같이 특히 남도의 음악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 온 악기들, 즉 감성적이고 표현력이 강한 음악에 더욱 적합하게끔 개량되고 발전해 온 악기들이 산조 연주를 위한 악기들이다.

Ajaeng Sanjo = The literal meaning of Sanjo is scattered melodies. This traditional musical style developed from Sinawi and Pansori. The ajaeng is a seven stringed Korean instrument. Famous for its sentimental expressiveness, it plays a particularly important role in Namdo music.

하현도드리[下絃還入] = 조선시대의 풍류음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영산회상(靈山會相)’ 중 여섯 번째 곡이다. ‘영산회상’은 ‘상령산(上靈山)’, ‘중령산(中靈山)’, ‘세령산(細靈山)’, ‘가락(加樂)덜어’, ‘삼현도드리[三絃還入]’,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念佛還入]’, ‘타령(打令)’, ‘군악(軍樂)’ 등 모두 아홉 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하현도드리’는 낮은 음역의 선율로 시작해 차츰 높은 음역으로 발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낮은 음역으로 이루어진 도입부에서는 대금과 거문고의 장중한 멋을 느껴볼 수 있다.

Hahyondodeuri = Hahyondodeuri is the sixth episode of Yeongsanhoesang. The other episodes in order are: Sangryeongsan, Jungryeongsan, Seryeongsan, Garakdeori, Samhyeondodeuri, Yeombuldodeuri, Taryeong, and Gunak. Hahyondodeuri begins with a low tone, slowly moving up to higher notes. The low tones of daegeum and geomungo are particularly well-suited to this majestic song.

대금산조(大笏散調) = 산조는 두 개의 악기, 즉 솔리스트(soliste)와 반주자[accompanist]의 편성으로 이루어진 음악이다. 반주악기로는 장구가 사용되며, 장단의 형태로 정해진 틀을 지켜 나가면서도 그 세부는 음악적 맥락에 따라 끊임없이 변형(variation)되는 등의 높은 기악적 예술성이 산조가 가진 특징이자 음악적 정체성이다. 반주자뿐 아니라 솔리스트 역시 소리의 미묘한 변화와 악기가 가진 고유의 작용 원리들을 이용해 선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특히 대금산조는 대금의 청공(淸孔)을 통해 흘러나오는 바람의 소리가 장단과 어우러지며 더욱 극적인 분위기와 다채로운 음악적 변화들을 이끌어 낸다.

Daegeum Sanjo = Sanjo is a popular musical style, solo and accompaniment, in traditional Korean music. In Daegeum Sanjo the accompaniment is janggu, which provides jangdan, rhythms with limited variations. The major tune of Daegeum Sanjo usually evolves with the unique sound mechanism of daegeum often characterized by its subtle change of tone and timbre. When harmonizing with the sound of wind in the sky, Daegeum Sanjo reveals its true, musical varieties in a dramatic fashion.

피리 상령산(上靈山) 풀이 = 피리 독주곡으로, '영산회상'의 첫 번째 곡인 '상령산'의 가락과 길이를 한결 확장해 연주한다는 의미로 붙여진 제목이다. 합주 형태로 연주되는 '상령산' 원곡도 상당히 느린 음악이지만, 독주음악으로 변형된 '피리 상령산 풀이'는 한국음악의 가장 상징적인 특징, 즉 느림의 미학이 특히 잘 드러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장중한 선율의 멋과 시공을 초월하는 듯한 가락의 멋이 돋보인다.

Piri Sangyongsan Puri = Piri Sangyongsan Puri is an extended piri solo version of Sangyongsan, the first part of Yeongsanhoesang. Sangyongsan is a slow tune, which symbolizes the beauty of slowness in Korean music. This is an incredibly solemn song that transcends the boundaries of time and space.

시나위 = 한국음악 가운데 가장 극적이며, 가장 심미적인 연주 분야로 '시나위'를 들 수 있다. 정형화되지 않은 작품 형태를 바탕으로 연주자와 연주자 사이의 보이지 않는 교감을 통해 전개되는 일종의 즉흥음악으로, 곡[composition]의 개념은 희박하다. 남도지역의 무속 음악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현대에 들어 발전을 거듭한 결과 이제는 당당한 예술음악의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Sinawi = Sinawi is arguably the most dramatic musical form in traditional Korean music. It does not have a standardized form or style, mainly performed improvisationally by a musical ensemble. Thus, the musical chemistry between players always takes an essential role in its performance. Originating from Shaman music in Namdo, it greatly improved its musical style in the modern era, and became one of the most artistically refined musical styles in Korea.

대금 · 김상연 ++ 국립국악원 대금 수석 + 한양대학교 국악과 겸임교수 + 한양대학교 음악학 박사 + 전국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



가아금, 양금 · 김형섭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국악과 졸업 + 한양대학교 국악학 석사 + 국립국악원 정악단 단원



아쟁 · 신재현 ++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동대학원 졸업 + 제3회 전국전통예술경연대회 종합대상 대통령상 수상 + (사)한무전통예술단장



피리 · 이승현 ++ 추계예술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 +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역임 + 국립국악학교 강사, 목원대학교 강사, 락음악단 악장 역임 + 남산국악당 초청 차세대명인전 독주회 + 현 증요형문화재 제46호 피리정악 및 대취타 이수자 ++ 한국음악앙상블 '풍류' 동인 + New convergence group 'leadingtone' 리더 + Project '한국인' 동인 +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단원



거문고 · 허익수 ++ 경기도립국악단 수석단원 + 난계국악경연대회 대통령상(2013) + 서울대학교 박사



장구 · 홍석복 ++ 국립국악원 정악단 부수석



Recording Notes

국악 음반녹음은 한국의 모든 레코딩 엔지니어들에게 큰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사람 대부분이 국악보다는 서양음악과 그 소리에 더 익숙해져 있기에, 국악기의 소리를 오히려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바로 이 부분에서 국악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국악이라는 음악 자체가 갖고 있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국악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소리도 매력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음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가야금, 해금 외에 거문고, 아쟁, 대금, 피리, 양금, 장구 등 우리 국악기의 다양한 소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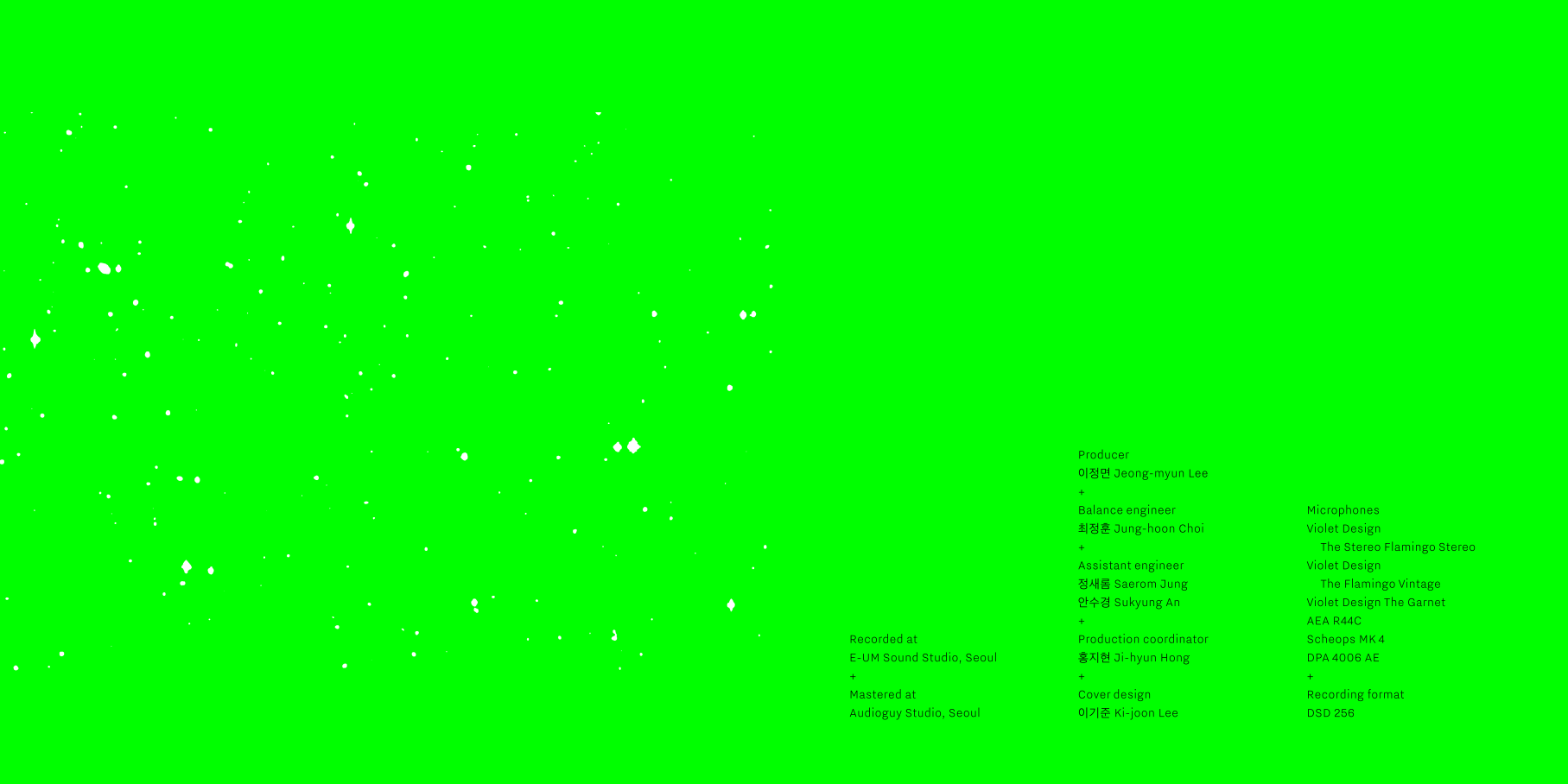
녹음 그리고 후반작업인 믹싱과 마스터링에 따라 음반에 담긴 소리는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이 음반의 경우 듣기 좋게 배근히 다듬어진, 인위적인 소리보다는 '마치 눈 앞에서 실제로 연주되는 것 같은, 생생하고 살아있는 소리 전달'을 목표로 녹음되었고, 이를 최종 결과물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음악산업 관계자들도 국악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가야금이나 장구도 음반에 따라 전혀 다른 소리로 녹음되어 전달되곤 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것들이 청자들에게 국악기 본연의 소리에 대한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어떠한 환경에서도 듣기 좋은 소리를 만드는 것이 저와 같은 레코딩 엔지니어의 사명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국악기 자체가 지니고 있는 개성과 색깔, 음악적 요소를 있는 그대로 청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국악과 국악기에 대한 매력을 잘 전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창작 국악음악이라면 달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번 음반의 수록곡들처럼 전통 음악인 경우에는 생생한, 악기 본연의 소리 전달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음반에 레코딩 엔지니어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소리보다는, 악기의 울림이 공간을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 귀로 전달되는 소리, 국악기 본연의 소리를 그대로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한 것은 마이크를 통해서 녹음기로 소리를 담으며 국악기 본연의 음색과 여운이 사라지지 않도록 붙잡은 것뿐입니다.

이번 음반을 통해 우리의 전통국악과 더불어 국악기의 소리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즐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훈, 레코딩 엔지니어



Recorded at
E-UM Sound Studio, Seoul
+
Mastered at
Audioguy Studio, Seoul

Producer
이정면 Jeong-myun Lee
+
Balance engineer
최정훈 Jung-hoon Choi
+
Assistant engineer
정새롬 Saerom Jung
안수경 Sukyung An
+
Production coordinator
홍지현 Ji-hyun Hong
+
Cover design
이기준 Ki-joon Lee

Microphones
Violet Design
The Stereo Flamingo Stereo
Violet Design
The Flamingo Vintage
Violet Design The Garnet
AEA R44C
Scheops MK4
DPA 4006 AE
+
Recording format
DSD 256

AGCD0062

© & © 2015
Audioguy Records, Ltd.

1807 Yongbieocheonga,
75 Naesu-dong,
Jongno-gu, Seoul, Korea

www.audioguyrecords.com